

# 아동학대유형에 따른 또래수용과 인성특성<sup>1)</sup>

Peer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of abused children

이화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석사 이주연

교수 박성연

Dep. of Home Management, Ewha Womans Univ.

Master : Joo Yeon Lee

Professor : Seong Yeon Pa rk

## 〈목 차〉

|            |             |
|------------|-------------|
| I. 서론      | IV. 연구방법    |
| II. 이론적 배경 | V. 연구결과     |
| III. 연구문제  | VI. 논의 및 결론 |
|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d (physical, emotional & neglect) children and their peer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The subjects were 320 fifth graders from the low-middle class of families in Seoul. The data were gathered by questionnaires and peer nomination method.

The major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 : (1) Children were physically abused mainly by their fathers, and neglected mainly by their mothers. (2) The significant differences in both peer relationships and personality were found according to the type of abuse. Physically abused children were viewed as either a neglected child or a aggressively rejected child who shows higher activity and impulsivity. But emotionally abused and/or neglected children were perceived as a neglected child who shows lower sociability. (3)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sonality among sociometric status groups.

1) 본 논문은 1995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 1. 서론

아동학대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온 현상이다. 그러나 학대는 가정이라는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다는 특수성때문에 외부에 노출된 기회가 적고 따라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대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팽배하게 된 개인주의와 가정의 고립, 가족지원체계의 부족 등은 그러한 학대의 발생 비율을 증가시킨 반면 사회적 관심을 더욱 불식시키게 하였다.

학대받는 아동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경 Kempe와 Helfer(1968)에 의해 서구사회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로 1980년대부터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초기에는 학대의 유형이나 발생빈도(Anderson, 1976; Schmitt, 1980; 김광일·고복자, 1987; 안동현·홍강익, 1987), 발생관련변인(Gil, 1971; Sherrod et al., 1984; Straus, Steimetz & Gelles, 1980; 권은주, 1978; 김정준, 1987; 김혜영, 1990; 신영화, 1986; 황영화, 1987)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대에 따른 아동의 발달적 영향에 관심을 두고 아동의 사회, 정서성 발달(Eckenrode, Laird & Doris, 1993; Salzinger et al., 1993; Sternberg et al., 1993; Trichkett et al., 1991; Wodarski et al., 1990; 권자영, 1991)에 연구의 초점을 두어 보다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조사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아동학대 연구들을 요약해보면 주로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맞추어왔고 이러한 학대는 사회계층이 낮은 경우 더 빈번히 발생하며, 부모의 권위적인 양육태도나 부부간의 폭력빈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외국연구들에 의하면 학대경험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쳐 아동기의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의 폭력이나 범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Alfro, 1978; Christopoulos et al., 1987; Pfouts, 1981; Smith, 1982), 학대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는 공격적 특성을, 방임은 정서적 위축을 수반한다고 보고(Eckenrode, Laird & Doris, 1993; Hoffman-Plotkin

& Twentyman, 1984; Wodarski et al., 1990)하고 있어 학대유형에 따라 발달적인 영향력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유교문화권이라는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신체적 체벌을 아동 훈육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왔고, 아직까지 부모의 훈육과 부당한 양육사이의 한계가 비교적 모호한 우리나라에서는 학대관련연구가 극히 드물게 이루어졌으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외에 다른 변인들은 폭넓게 다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루어진 몇몇의 연구들도 주로 신체적인 학대를 중심으로 아동의 사회성을 교사보고나 자기보고식으로 연구하였을 뿐이다.

한편 최근 자료에 의하면 서구사회에서와 거의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피험자 전체의 10%내외에 해당되는 많은 수의 아동이 심한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있을뿐 아니라, 아동의 발달적 측면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아동으로 하여금 폭력을 학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김광일, 1992)에 아동학대의 문제는 개별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연구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더욱이 학대는 모델링을 통한 직접적 폭력학습으로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격특성으로 내재화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아동의 인성이나 사회성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Mussen, 1991) 그 영향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로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두었던 선행연구의 관점을 확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방임 등 학대의 유형에 따른 발생빈도와 가해자를 살펴보고, 학대유형별로 학대아동과 비학대아동의 또래수용과 인성특성을 함께 비교하는데 목적을 둔다. 본 연구는 중하위층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학대현황을 파악하고, 직접적인 또래평가를 통해 사회성 발달을 연구하며 아동학대와 인성적 특성의 관계를 규명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나아가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 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라는 용어는 1961년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고(Gil, 1971). 아동학대의 고전적 논문으로 알려진 Kempe와 Helfer(1962)의 “매맞은 아동 증후군”(Battered Child Syndrome)에서 아동학대는 “신체적으로 심한 상처를 받은 아동으로 그 상처가 부모나 양육자의 의도적인 행위 및 태만의 결과로 나타난 경우”로 정의되었다. Gil(1970)에 의해 이러한 개념은 확대되었는데, 그는 개인, 가정, 제도, 사회에 의해 가해지는 아동의 평등한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거나 아동의 적절한 발달을 저해하는 적극적 행위나 소극적 방임 모두를 아동학대로 간주하였다. Fontana(1971)는 Gil의 정의보다 넓은 개념으로 부당한 아동취급(maltreatment)의 개념에 정서박탈, 방임, 영양 부족, 물질적 요구의 결손, 언어적 학대나 구타 등을 모두 포함시켰으며, 학대를 부당한 아동양육의 한 극단으로 보았다.

이러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학대는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양육태만 등의 네가지로 분류, 정의될 수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Eckenrode, Laird와 Doris(1993)의 정의를 기초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세 가지 유형을 연구에 사용하고자 한다.

### 2. 아동학대에 관한 이론적 모델

아동학대연구들에서 자주 인용되는 이론적 모델은 정신분석이론, 애착이론, 사회학습이론, 및 생태학적 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중 정신분석이론이나 애착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은 학대로 인한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며, 생태학적 이론은 아동학대의 발생조건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첫째, Freud의 정신분석 이론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모델의 성격특성이 모방을 촉진시키게 되는 이유라고 설명한다(Hetherington & Parke, 1979). 즉, 처벌에 대한 두려움은 공격자에 대한 방어적 동일시로 나타나 위협적 모델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이러한 의식, 무의식적 동일시는 아동의 인성이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애착이론에서, Alber와 Allen(1987) 그리고 Egeland, Sroufe와 Erickson(1984) 등은 모두 학대받는 아동이 부모에게 강한 애착을 보이는 하나 그 유형에 있어 불안정하게 애착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그들은 정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되고, 더 공격적이며 대인관계에서의 문제점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셋째, Bandura에 의해 주장되는 사회학습 이론에서는, 학대하는 부모에게 노출되므로써 아동은 의식, 무의식적으로 부모를 모방하게 된다고 설명한다(Mussen, Kagan & Huston, 1991에서 재인용).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특히 신체적 학대를 받는 아동의 공격적 특성을 모방학습으로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학대하는 부모 역시 과거 그들의 아동기에 학대를 경험하였고 이는 모방학습을 통해 자녀양육의 전략으로 내재화된다는 점에 초점을 둔다. 더욱이 이 모델에서는 직접적인 학대경험이외에 학대나 폭력의 관찰까지도 학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정내 모든 폭력의 악영향을 보다 폭넓게 설명하고 있다(Emery, 1989; Sternberg, 1993).

네째, 생태학적 모델(Belsky, 1984)은 Bronfenbrenner의 인간발달에 관한 생태학적 모델을 이론적 근거로 하여 부모의 영향력을 전체 환경요인의 하나로 파악한다. 이 모델에서는 아동학대를 사회적, 심리적 현상으로 보고 이는 개인적 차원, 가족차원, 사회공동체 차원 그리고 문화적 차원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개념화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Garbarino(1977)는 문화적 특수성과 가족지원체계의 부적절성을 학대발생조건의 두가지 요인으로 설명한다.

### 3. 아동학대와 가정환경적 특성

학대와 가정환경적 특성에 관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대개 낮은 사회계층의 가정에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공통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Gil, 1971; Straus, Steimetz & Gelles, 1980; Trickett et al., 1991

; 권자영, 1991; 김광일, 고복자, 1987; 김영숙, 1988; 김혜영, 1990).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용 하류계층에 국한시켜 표집하였을 경우에도 학대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사회계층(SES)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Egeland, Sroufe, & Erickson, 1984; Sternberg et al., 1993; Trickett et al., 1991; 김성준, 1987). 이와같이 낮은 사회계층에서 학대가 빈번한 이유는 하류층 부모의 심리적 취약성(Gil, 1970)이나 권위적인 양육행동(Trickett et al., 1991), 빈곤한 환경으로 인한 아동의 건강상태(Sherrod et al., 1984)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

사회계층에 따른 특성이외에 학대관련 연구들은 학대의 가해자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Gehmak(1983)과 Bergman(1986) 등은 일반적으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에 의해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권자영, 1991에서 재인용).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신체적 학대만을 대상으로 연구한 국내의 연구들(권자영, 1991; 신영화, 1986; 안동현·홍강의, 1987; 주영희, 1984)에서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에 의해 학대가 더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함으로써 결과의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학대의 유형에 따라 가해자는 다를 것으로 예측된다.

#### 4. 학대경험이 아동의 사회성 및 인성특성에 미치는 영향

학대받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연구들은 대개 사회성 발달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공통적인 결과를 보고한다. Dekovic와 Janssens(1992), Kaufman과 Cicchetti(1989), Salzinger와 동료들(1993), Smetana와 동료들(1984), Sternberg와 동료들(1993), Trickett과 동료들(1991), 권은주(1978), 김영숙(1988), 김정준(1987), 노치영(1988) 등은 학대의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낮은 또래지위, 높은 공격성, 부정적 사회관계망, 위축된 행동, 정서적 장애 등의 특성을 들고 있다.

더욱이 최근연구들(Eckenrode, Laird & Doris, 1993; Wodarski et al., 1990)에 의하면 그 영향력이 학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보고된다. 즉, 신체적 학대를 받은 아동은 더 많은 문제행동을 보인 반면, 방임당

한 아동은 학업적인 수행에서만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Eckenrode, Laird & Doris, 1993). 또한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도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성을 보이는 반면, 방임당한 아동은 또래와의 낮은 접촉빈도를 보여 유형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고하였다(Hoffman-Plotkin, 1984).

사회성 발달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학대경험이 아동의 인성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대개 넓은 의미에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해 연구되었으며 그 결과 역시 공통점을 갖는다. Mussen(1991), Hennessy(1994) 등은 자녀에게 엄격하고 지배적인 부모는 훈육에서 처벌과 통제를 많이 사용하기에 아동의 비사회적 행동이나 충동적 성격특성을 조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권자영(1991)은 학대아동이 사회적 위축, 정서적 불안정, 강박-우울, 과잉활동, 정신병 등에서 더 높은 유의성을 보인다고 보고하면서, 행동적인 영향력보다는 정서적 특성이나 성격유형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강조하였다.

이렇게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아동의 인성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반향, 공격적 행동의 모델을 제공하고 강화시킬뿐 아니라 그와는 전혀 반대인 정서적 위축이나 우울의 특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인성형성의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 아동기때의 학대 경험은 그 영향력에 있어 더욱 심각할 수 있다.

#### 5. 또래수용유형과 아동의 인성특성

또래는 아동이 가정환경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영역으로 갖게되는 최초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관계의 영향력이 뚜렷하게 반영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초기 또래관계는 이후 청소년기, 성인기의 적응문제 등과의 1차적 연결과정이라 할 수 있기에 아동의 발달에 있어 중요하게 다루어진다(Hymel et al., 1990). 이러한 또래관계는 아동의 성격특성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또래관계와 관련된 최근의 연구들은 대개 인기아, 무시아(비공격적인 거부아), 공격적 거부아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는데, 이러한 또래수용유형

별 연구들은 그 수나 기준에 있어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기는 하나 그 경향성에 있어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Bierman(1993)과 Dodge(1983) 등은 거부아와 무시아에게서 부적절한 행동특성이 자주 관찰되었으며, 특히 거부아에게서는 다른 모든 집단들에 비해 신체적 공격행동, 부정적 수행문제가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Hymel과 그의 동료들의 연구(1990)에서는 무시아의 경우 낮은 자긍심과 안정성, 불안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학대경험이 또래수용이나 인성특성에 관련되고, 또래수용이 인성특성과 관련되나 이들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는 없었으며, 더욱이 국내에서는 학대아동의 또래수용을 다룬 연구가 없었으므로 학대경험과 또래수용, 인성특성의 세가지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 III. 연구문제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동기에 경험하는 학대는 그들의 인성이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대유형에 따라 가해자가 다르고 그 영향력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유형별로 가정환경적 특성을 분석하고, 학대유형에 따라 인성적 특성이나 또래수용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규명해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아동의 학대유형과 가정환경적 특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아동의 학대유형에 따라 또래수용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아동의 학대유형에 따라 인성특성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아동의 또래수용유형과 인성특성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특히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세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① 신체적 학대는 양육자에 의해 고의적, 우발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손상으로, ② 정서적 학대는 극단적인

말로 아동을 모독, 비난하는 등의 적극적 거부행위로, ③ 방임은 양육의 태만과 무관심 등으로 정의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성적학대를 제외시킨 이유는 또래수용유형의 측정과 관련하여 남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 연구가 '학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그 정도에 있어서 경미한 학대를 포함시켰고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학대개념의 정의가 아직 모호한 실정이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학대의 개념이 정확한 의미에서는 부모의 '부당한 취급(maltreatment)'에 해당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 IV.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내에서 중하류계층으로 여겨지는 지역의 국민학교 5학년 남아 3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중하류층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은 아동학대 발생비율을 고려한 것이며, 남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또래수용 측정시 나타나는 성에 따른 영향력(Hymel & Asher, 1977)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다.

본 연구대상 아동들의 부모의 평균연령은 아버지가 42세, 어머니가 38세였으며,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전체의 35%, 어머니는 40%가 국민학교 또는 중학교 졸업자에 해당하였다. 아버지의 직업은 전체의 33.8%가 노동, 행상, 청소부와 같은 단순노무직이었으며 전문직은 7.8%에 불과하였고 어머니의 경우는 42.9%가 가정주부였으나, 17.2%가 단순노무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결과를 1990년 기준의 교육별, 1993년 기준의 직업별 전체 인구 분포자료(대한통계협회, 1990; 통계청, 1994)와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본 연구대상자는 중하류계층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 2. 측정도구

자료수집에 사용된 질문지는 가정환경적 특성, 아

동의 학대경험과 학대자, 또래수용유형, 그리고 아동의 인성특성 등 내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가정환경에 대한 사항은 부모의 나이, 교육수준, 직업이었고 다른 측정도구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학대경험

본 연구에서는 학대유형별로 그 빈도와 학대자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의 세가지 유형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신체적 학대 경험은 Straus(1979)가 제작한 CTS(Conflict Tactics Scale)중 폭력척도를 수정, 보완한 권자영(199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정서적 학대는 신영화(1986)의 정서적 학대 척도를 사용하였고, 방임은 황영희(1984)가 제작사용한 질문지 문항중 방임과 관련된 9개의 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는데, 이는 세가지의 학대 경험틀 포함한 하나의 척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문항은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몇개월 동안에 일어난 학대의 경험을 묻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전혀 없었다' '가끔 그랬다' '자주 그랬다'의 3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와 더불어 모든 문항마다 학대자가 아버지, 어머니, 기타(구체적으로 지명) 중 누구인지를 밝히도록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대경험에 대한 각 유형별 신뢰도는 신체적 학대(10문항)가 .82, 정서적 학대(11문항) .80, 방임(9문항) .72였다.

### 2) 또래수용유형

본 연구에서는 Coie와 Dodge(1983)에 의해 개발된 또래지명법(peer nomination)을 사용하여 또래수용유형을 구분하였다. Coie와 Dodge(1983)의 또래지명법은 협동적 인기아, 공격적 거부아, 위축아를 포함한 다분법을 기준으로 하였기에 자주 사용될 뿐아니라 간단한 문항으로 또래수용도를 평가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어(Kaufman & Cicchetti, 1989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유형 분류의 내용은 ① 분단을 나눌때 같은 분단이 되고 싶은 친구, ② 같은 분단이 되고 싶지 않은 친구, ③ 수줍음을 잘 타고 혼자 다니는 친구, ④ 싸움을 잘 거는 친구, ⑤ 반장이나 조장이 되었으면 하는 친구

의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급의 모든 남아를 대상으로 각 문항당 3명씩 학급또래의 이름을 적도록 하였다.

각각의 문항별로 또래에 의해 몇번 지명되었는지를 체크하였고 학급마다 다른 남아수를 감안하여 100분율로 점수를 표준화하였다. 각 또래수용 측정문항을 빈도 백분율에 따라 상중하의 세 집단으로 구분한 후, 문항 ①과 ②에서 모두 상위 33%이고 다른 문항에서 하위 66%에 속하는 아동을 인기아로 분류하였으며, ③의 문항에서만 상위 33%에 해당하는 아동을 무시아로, 문항 ②와 ④에서 모두 상위 33%에 해당하고 다른 문항에서는 하위 66%에 해당하는 아동을 거부아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된 인기아, 무시아, 거부아의 세 집단을 또래수용유형에 대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 3) 인성특성

아동의 인성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정범모(1994)가 제작한 표준화된 국민학교용 인성검사지의 총 250 문항중 각 항목별로 10문항씩 60문항을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의 6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 3. 연구절차

본조사는 1995년 9월 중순부터 말에 걸쳐 질문지 조사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배포된 총 380부 중 362부가 회수되었고, 이중 무응답 문항을 포함한 19부와 대답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5부를 제외시켰다. 또한 본 연구는 친부모 모두로부터의 학대여부를 연구주제로 하였기에 고아원에서 생활하는 아동 6명과 편부, 편모가정으로부터의 아동 9명, 계부, 계모와 함께 사는 아동 3명을 제외하여 양친이 있는 일반가정의 아동 총 320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학급의 담임선생님에게 별도의 유의사항을 부탁드린 후, 학급단위로 방과후에 일괄적으로 실시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PC program을 사용하여 문항별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각각의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Pearson의 적률 상관관계분석,  $\chi^2$  검증, t-검증, 일원변량분석, 그리고 추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모든 유의도는  $p < .05$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V. 연구결과

1. 학대경험과 가정환경적 특성

본 연구의 결과, 학대의 유형에 따라 발생빈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신체적 학대문항중 불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등의 경미한 학대에 대해 피험자의 24%가, 흉기를 사용하는 등의 심각한 학대에 대해서는 피험자의 10%가 학대경험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문항에서는 평균 19%의 아동이, 방임문항에서는 평균 26%의 아동이 학대경험을 보고하여, 전체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학대보다는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환경적 특성으로 가해자가 부모중 누구인지와, 부모의 교육, 직업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학대유형에 따라 추가해자가 달랐는데, 신체적 학대는 어머니(27.5%)보다 아버지(50.4%)에 의해 월등하게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학대의 강도면에서도, 흉기로 위협하고(8명-66.7%) 병원에 갈 정도(24명-70.6%)의 심각한 학대경험에 대해서는 전

체 학대경험자의 70% 정도가 아버지에 의한 학대를 보고하였다. 반면 정서적 학대는 아버지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29.8%, 어머니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44.0%로 나타났다. 방임 또한 아버지(22.5%)보다는 주로 어머니(49.4%)에 의해 더 높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문항의 내용이 직접적인 양육의 태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상관관계분석결과, 본 연구대상이었던 중하류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아버지의 교육수준(신체적 학대;  $r = -.120, p < .05$  정서적 학대;  $r = -.170, p < .01$  방임;  $r = -.188, p < .01$ )과 어머니의 교육수준(신체적 학대;  $r = -.174, p < .01$  정서적 학대;  $r = -.180, p < .01$  방임;  $r = -.242, p < .001$ ), 아버지의 직업수준(신체적 학대;  $r = -.387, p < .001$  정서적 학대;  $r = -.336, p < .001$  방임;  $r = -.201, p < .01$ )이 낮을수록 세가지 유형의 학대경험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에 의해 자주 발생하는 방임은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부적 상관( $r = -.242, p < .001$ )을 보였다.

2. 학대유형에 따른 또래수용유형

또래수용유형을 인기아, 무시아, 거부아로 분류하고, 학대유형에 따라 학대를 전혀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학대를 경험한 집단 중 상위 20% 집단을 선정하여<sup>2)</sup> 또래수용유형에서의 차이를  $\chi^2$  검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학대집단과 일반집단간에 또래수용유형의 차이는 세가지의 학대유형 모두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결과는 <표 1>, <표 2>,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1> 신체적 학대경험과 또래수용유형에 관한  $\chi^2$  검증

|       | 인기아      | 무시아      | 거부아      | 합계        | $\chi^2$<br>(df=2) |
|-------|----------|----------|----------|-----------|--------------------|
| 일반 집단 | 15       | 7        | 11       | 33( 57.9) |                    |
| 학대 집단 | 3        | 10       | 11       | 24( 42.1) |                    |
| 합계    | 18(31.6) | 17(29.8) | 22(38.6) | 57(100.0) |                    |

\*  $p < .05$

2) 본 연구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측정하였기에 학대 무경험자가 전체피험자의 20-30%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학대경험 비교집단의 선정에 있어, 전체분포의 평균을 중심으로 양극단치에서 대략 20%에 해당하는 피험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표 2〉 정서적 학대경험과 또래수용유형에 관한  $\chi^2$  검정

|      | 인기아      | 무시아      | 거부아      | 합계        | $\chi^2$           |
|------|----------|----------|----------|-----------|--------------------|
| 일반집단 | 18       | 6        | 9        | 33(54.1)  | 17.78***<br>(df=2) |
| 학대집단 | 3        | 19       | 6        | 28(45.9)  |                    |
| 합계   | 21(34.4) | 25(41.0) | 15(24.6) | 61(100.0) |                    |

\*\*\* p&lt;.001

〈표 3〉 방임경험과 또래수용유형에 관한  $\chi^2$  검정

|      | 인기아     | 무시아      | 거부아      | 합계        | $\chi^2$           |
|------|---------|----------|----------|-----------|--------------------|
| 일반집단 | 7       | 6        | 10       | 23(51.1)  | 15.56***<br>(df=2) |
| 학대집단 | 0       | 18       | 4        | 22(48.9)  |                    |
| 합계   | 7(15.6) | 24(53.3) | 14(31.1) | 45(100.0) |                    |

\*\*\* p&lt;.001

위의 결과들을 살펴보면 유형에 따라 학대경험간에 또래수용유형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즉,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들은 학대유형에 관계없이 또래에 의해 주로 부정적인 무시아로 분류되고 있으며 긍정적인 인기아로 여기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그러나 특히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다른 유형의 학대경험아동과는 달리 거부아로도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학대유형에 따른 인성특성

전혀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을 일반집단으로, 전체 학대보고자의 상위 20%를 학대집단으로 각각 선정하여, 두 집단간에 인성특성의 6가지 영역(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에서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4〉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경험이 높은 집단일

〈표 4〉 신체적 학대경험집단과 일반집단의 인성특성에 대한 t-검정

| 종속변인        | 활동성       |      |          | 지배성       |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일반집단 (N=97) | 11.44     | 3.96 | -4.34*** | 8.75      | 4.76 | .58      |
| 학대집단 (N=65) | 14.25     | 4.02 |          | 8.22      | 6.23 |          |
| 종속변인        | 안정성       |      |          | 충동성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일반집단 (N=97) | 10.19     | 4.20 | 3.36**   | 9.52      | 4.34 | -3.86*** |
| 학대집단 (N=65) | 7.92      | 4.05 |          | 12.65     | 5.42 |          |
| 종속변인        | 사려성       |      |          | 사회성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일반집단 (N=97) | 11.90     | 3.61 | 3.24**   | 13.05     | 4.22 | 3.40**   |
| 학대집단 (N=65) | 9.55      | 4.95 |          | 10.46     | 5.00 |          |

\*\* p&lt;.01 \*\*\* p&lt;.001



〈표 5〉 정서적 학대경험집단과 일반집단의 인성특성에 대한 t-검정

| 종속변인         | 활 동 성     |      |        | 지 배 성     |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독립변인         |           |      |        |           |      |          |
| 일반집단 (N=118) | 11.99     | 3.52 | -2.21* | 8.39      | 4.87 | .00      |
| 학대집단 (N= 67) | 13.45     | 4.65 |        | 8.39      | 5.85 |          |
| 종속변인         | 안 정 성     |      |        | 충 동 성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독립변인         |           |      |        |           |      |          |
| 일반집단 (N=118) | 9.76      | 4.31 | 2.61*  | 9.19      | 4.31 | -3.99*** |
| 학대집단 (N= 67) | 8.04      | 4.11 |        | 12.34     | 5.55 |          |
| 종속변인         | 사 려 성     |      |        | 사 회 성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독립변인         |           |      |        |           |      |          |
| 일반집단 (N=118) | 11.59     | 3.79 | 2.96** | 12.79     | 3.71 | 4.05***  |
| 학대집단 (N= 67) | 9.55      | 4.78 |        | 10.04     | 4.75 |          |

\* p&lt;.05 \*\* p&lt;.01 \*\*\* p&lt;.001

〈표 6〉 방임경험집단과 일반집단의 인성특성에 대한 t-검정

| 종속변인        | 활 동 성     |      |        | 지 배 성     |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독립변인        |           |      |        |           |      |        |
| 일반집단 (N=62) | 12.70     | 3.59 | -1.48  | 9.57      | 5.07 | 1.60   |
| 학대집단 (N=67) | 13.78     | 4.37 |        | 7.97      | 5.69 |        |
| 종속변인        | 안 정 성     |      |        | 충 동 성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독립변인        |           |      |        |           |      |        |
| 일반집단 (N=62) | 9.63      | 4.45 | 1.71   | 10.09     | 4.33 | -2.19* |
| 학대집단 (N=67) | 8.27      | 4.33 |        | 12.01     | 5.43 |        |
| 종속변인        | 사 려 성     |      |        | 사 회 성     |      |        |
|             | $\bar{X}$ | S.D  | T      | $\bar{X}$ | S.D  | T      |
| 독립변인        |           |      |        |           |      |        |
| 일반집단 (N=62) | 11.63     | 4.44 | 2.70** | 12.89     | 4.89 | 2.91** |
| 학대집단 (N=67) | 9.40      | 4.65 |        | 10.42     | 4.52 |        |

\* p&lt;.05 \*\* p&lt;.01

수록 인성특성 중 활동성과 충동성이 높고, 안정성과 사려성, 사회성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서적 학대경험이 높은 집단일 경우 활동성과 충동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은 낮게 나타났다(표 5). 그리고 〈표 6〉에서 보듯이 방임을 경험한 집단은 충동성은 높게, 사려성과 사회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상에서 보듯이, 학대유형에 관계없이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인성특성 중 활동성과 충동성은 높은

반면, 사려성과 사회성, 안정성 등은 낮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유형별로 평균값을 비교해 보았을 때, 특히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다른 학대를 경험한 아동에 비해 높은 활동성을 나타냄으로써 유형에 따라 정도차의 경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활동성 평균이  $\bar{X}=14.25$ 인 반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bar{X}=13.45$ ,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bar{X}=13.78$ 이었다.

4. 또래수용유형과 인성특성

인기아, 무시아, 거부아의 또래수용유형과 6가지 인성특성의 관계를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Duncan의 추후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되어 있다.

<표 7>에 의하면, 인기아는 다른 집단과 비교하여 덜 활동적이고 더 지배적이며 사려성이 높고 사회적인 인성특성을 지녔고, 무시아는 덜 지배적이고 사려성이 낮은 인성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아는 활동적이면서 지배적인 인성특성을 가졌으나 매우 충동적이고 사려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유형에 따라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거부아로,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이 무시아로 인식되는 이유와 연결되어 이해될 수 있다. 즉,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공격적인 특성에 의해 충동성과 지배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또래관계에서 공격적 거부아로 분류되는 이유일 수 있다. 반면 정서적 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정서적 위축이나 미성숙으로 인한 부적응 등에 의해 낮은 사회성과 사려성을 나타낼 수 있

고 이는 또래관계에서 무시아로 분류되는 결과와 관계된다고 하였다.

VI.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아동학대유형별 또래수용과 인성특성에 대해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대경험과 가정환경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더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학대가 더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하류계층의 표집시에도 더 낮은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학대가 높게 보고된다는 선행연구들(Egeland, Sroufe, & Erickson, 1984; Kaufman & Cicchetti, 1989; Sternberg et al., 1993; Trickett et al., 1991)과 일치한다. 학대유형별로 가해자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아버지에게 의해 더 빈번히 발생하였으며, 아버지의 직업수준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반면에 정서적 학대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에게서 비슷한 비율로, 방임은 어머니에 의해 더 빈번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가 방임을 많이 하는 것은, 어머니의 경우 아동

<표 7> 또래수용유형별 집단의 인성특성에 관한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            | 활 동 성 |      |       |        | 지 배 성 |      |       |        |
|------------|-------|------|-------|--------|-------|------|-------|--------|
|            | X̄    | S.D  | F     | Duncan | X     | S.D  | F     | Duncan |
| 인기아 (N=33) | 12.12 | 3.41 | 3.97* | A      | 10.52 | 5.04 | 3.80* | A      |
| 무시아 (N=36) | 13.25 | 3.82 |       | A B    | 7.31  | 5.78 |       | B      |
| 거부아 (N=33) | 14.79 | 4.31 |       | B      | 10.52 | 5.98 |       | A      |
|            | 안 상 성 |      |       |        | 충 동 성 |      |       |        |
|            | X̄    | S.D  | F     | Duncan | X     | S.D  | F     | Duncan |
| 인기아 (N=33) | 9.52  | 3.34 | .65   |        | 10.94 | 4.02 | 3.22* | A      |
| 무시아 (N=36) | 8.42  | 4.48 |       |        | 10.86 | 5.22 |       | A      |
| 거부아 (N=33) | 8.67  | 4.51 |       |        | 13.58 | 5.57 |       | B      |
|            | 사 리 성 |      |       |        | 사 회 성 |      |       |        |
|            | X̄    | S.D  | F     | Duncan | X     | S.D  | F     | Duncan |
| 인기아 (N=33) | 10.97 | 3.17 | 3.33* | A      | 12.85 | 3.83 | 2.01  |        |
| 무시아 (N=36) | 8.44  | 4.23 |       | B      | 10.67 | 4.88 |       |        |
| 거부아 (N=33) | 9.58  | 4.63 |       | A B    | 11.94 | 4.82 |       |        |

\* p < .05

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동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학대집단과 일반집단의 또래수용유형에 차이가 있었는데,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무시아나 거부아로 분류된 반면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또래들에 의해 대개 무시아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으로 학대받은 아동은 공격적인 반면, 방임당한 아동은 또래와의 낮은 접촉빈도를 보인다는 Hoffman-Plotkin과 Twentyman(198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모든 유형의 학대경험이 아동의 또래관계에서의 정서적 위축, 고립과 관계가 있으며, 특히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다른 학대와 달리 외형적인 폭력을 수반하기 때문에 학대경험이 관찰학습에 의해 또래관계에서 공격적인 성향으로 반영된다는 것을 입증해준다. 따라서 신체적 학대는 학대행위 그 자체로 인한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손상뿐 아니라 공격적인 특성에 의해 또래에게 거부되는 매우 부정적이고 치명적인 영향력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학대경험에 따른 인성특성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은 활동성과 충동성이 높았으며 안정성이 낮았다. 이는 부모의 신체적 학대라는 폭력적인 성향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아동이 이를 의식, 무의식적으로 내재화하고, 그 결과 그들의 인성특성 중 공격적인 면에 그것이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집단은 상대적으로 높은 충동성과 낮은 사회성, 낮은 사려성을 보였고, 방임을 경험한 집단 역시 낮은 사회성과 낮은 사려성을 보였다. 이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경험하는 아동의 경우 감정적으로 위축될 수 있고 정신적인 애정결핍 등에 의해 미성숙한 사회성 발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넷째, 또래수용유형과 인성특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인기아는 지배성과 사려성이 높은 반면, 무시아는 지배성과 사려성이 낮으며, 거부아는 지배성과 충동성이 높았다. 그런데 거부아의 경우 인기아와 같이 지배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대상을 남

아로 제한한 것과 어느정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진다. 즉, 우리나라와 같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두가지 특성을 동시에 남성성의 주요요인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높은 공격적 특성을 보이는 거부아의 경우, 같은 맥락에서 지배성 또한 높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에는 또래수용유형에 따른 인성특성이 남아와 다를 것으로 가정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아버지에게 의해 더 자주 발생하는 신체적 학대는 아동에게 정서적 위축과 더불어 폭력적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그러한 아동은 높은 충동성과 지배성을 나타내 거부아로 인식되었고, 어머니에 의해 더 자주 발생하는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외향적인 지배성보다는 낮은 사려성과 사회성의 특징을 보여 무시아로 인식되었다. 이 결과들에 대해 각각 다른 원인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신체적 학대경험은 폭력성의 모방학습이라는 사회학습이론으로, 방임의 경험은 불안정한 애착형성에 의한 미성숙한 부적응아로의 발달이라는 애착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는 아동은 환경적 영향요인에서 주로 아버지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학대로 인한 폭력학습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방임의 경우는 어머니의 특성요인과 또래관계에서의 고립, 정서적 위축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등 학대유형에 따라서 다른 접근을 시도해야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더욱이 부모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는 물론 양육태만이나 무관심 같은 방임형태의 학대도 아동의 사회성, 인성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양육에 있어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연구결과들은 중하류층의 국민학교 5학년 남아들에 국한된 것이므로 일반화에 제한점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학대경험과 인성특성 및 또래수용과의 관계는 인과관계가 아닌 상호관련적인 관계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연구들과는 달리 학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세분화하여

그 영향력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학대유형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측면을 실제 사회적 관계의 대상인 또래에 의해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연구들에 대한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아동학대와 관련된 앞으로의 후속연구가 학대에 대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본 연구가 후속연구의 기초자료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권은주.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78.
- 2) 권자영.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 3) 김광일. 가정폭력 - 그 실상과 대책 -. 탐구당, 1992.
- 4) 김광일 · 고복자. 한국에서의 아동구타 발생을 - 국민학교 아동의 경우 -. 정신건강연구 제 6집, 1987, 66-81.
- 5) 김영숙. 아동기 피학대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6) 김정준.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7.
- 7) 김혜영.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가출 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8) 노치영.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9) 대한통계협회.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제1권 전국편, 1990.
- 10) 신영화. 한국아동학대의 사회인구 및 가족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11) 안동현 · 홍강의. 한국에서의 아동구타현황 -병원 상황에서-. 정신건강연구, 제 6집, 53-65, 1987.
- 12) 정범모. 인성검사방법요강. 코리안테스팅센터, 1994.
- 13)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 14) 황영희. 부모의 결혼만족도와 아동학대와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 15) Alber, J.L. & Allen, J.P. Effects of maltreatment on young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 An attachment theory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987, 406-414.
- 16) Alfaro, J.D. Project Director Summary Repor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Later Socially Deviant Behavior. New York State select Committee on Child Abuse, 1978.
- 17) Anderson, J. Extent of the Problem. IN Child Abuse and Neglect : A Report to the Canadian House of Commons. Ottawa : Printing and Publishing Supply and Service, 1976.
- 18) Belsky, J., Lerner, R.M., & Spanier, G.B. The Child in the Family. New York : Random House, 1984.
- 19) Bierman, K.L., Smoot, D.L., & Aumiller, K. Characteristics of aggressive-rejected, aggressive (nonrejected), and rejected(non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64, 1993, 139-151.
- 20) Christopoulos, C., Cohn, D.A., Shaw, D.S., Joyce, S., Sullivan-Hanson, J., Kraft, S.P. & Emery, R. E. Children of abused women : Adjustment at time of shelter resid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987, 611-619.
- 21) Dekovic, M. & Janssens, J.M.A.M.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 1992, 925-932.
- 22) Dodge, K.A. Behavioral antecedents of peer social status. *Child Development*, 54, 1983, 1386-1399.
- 23) Eckenrode, J., Laird, M., & Doris, J. School performance and disciplinary problems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93, 53-62.

- 24) Egeland, B., Sroufe, L.A. & Erickson, M. The developmental consequences of different patterns of maltreatment. *Child Abuse and Neglect*, 1, 1984, 459-469.
- 25) Emery, R.E. Family violence. *American Psychologist*, 44, 1989, 321-328.
- 26) Fontana, V.J. *The Maltreated Child* (2nd ed). Illinois : Charles C. Thomas, 1971.
- 27) Gil, David G. *Violence Against Children ; Physical Child Abuse in the United Stat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28) ————. Physical Abuse of Children. *Pediatrics*, 44, 1971, 857-864.
- 29) Hennessy K.D., Rabideau, G.J., Cicchetti, D. & Cummings E.M. Responses of physically abused and nonabused children to different forms of interadult anger. *Child Development*, 65, 1994, 815-828.
- 30) Hetherington, J. & Parke, L. *Child Psychology ; A Contemporary Viewpoint*. New York : McGraw-Hill, 1979.
- 31) Hoffman-Plotkin, D. & Twentyman, C.T. A multimodal assessment of behavioral and cognitive deficits in abused and neglected preschoolers. *Child Development*, 55, 1984, 794-802.
- 32) Hymel, S., Rubin, K.H., Rowden, L., & Lemare, L.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 Longitudinal prediction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from middle to lat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1, 1990, 2004-2021.
- 33) Kaufman, J. & Cicchetti, D. Effects of maltreatment on school-age children's socioemotional development: Assessments in a day-camp sett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5, 1989, 516-524.
- 34) Kempe, R.S. & Helfer, R.E. *The Battered Chil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 35) Mussen, P.H., Conger, J.J., Kagan, J. & Huston, A.C.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Harper & Row, 1991.
- 36) Pfouts, I.H. Deviant Behaviors of Child Victims and Bystanders in Violent Families, 1980. IN Robert, J.H. & Yvonne E.W.(ed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Abuse and Delinquence*. Montclair, N.J. : Allan Held, Osmun, 1981.
- 37) Salzinger, S., Feldman, R.S., Hammer, M., & Rosario, M.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4, 1993, 169-187.
- 38) Schmitt, B.D. The Children with Nonaccidental Trauma. IN Kempe, C.H. & Helfer, R.E.(eds.) *The Battered Child*.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 39) Smetana, J.G., Kelly, M. & Twentyman, C. Abused, neglected and nonmaltreated children's conceptions of moral and social conventional transgressions. *Child Development*, 55, 1984, 277-287.
- 40) Smith, A. Long-term Correlates of Child Victimization ; Consequences of Intervention,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acific Sociological Association. San Diego, 1982.
- 41) Sherrod, K.B., O'Connor, S., Vietze, P.M., & Altemeier III, W.A. Child health and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55, 1984, 1174-1183.
- 42) Sternberg, K.J., Lamg, M.E., Greenbaum, C., Cicchetti, D., Dawud, S., Cortes, R.M., Drispin, O., and Lorey, F.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nd dep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1993, 44-52.
- 43) Straus, M.A.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1979, 75-78.
- 44) Straus, M.A., Steimetz, S.K., & Gelles, R.J. *Behind Closed Doors ;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 Doubleday/Anchor, 1980.
- 45) Trickett, P.K., Aber, J.L., Carlson, V. & Cicchetti, D.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Status to the

- 
- Etiology and Developmental Sequelae of Physical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991, 148-158.
- 46) Wodarski, J.S., Kurtz, P.D., Gaudin, J.M., & Howing, P.T. Maltreatment and the school-age child : major academic, socioemotional, and adaptive outcomes. *Social Work*, 35, 1990, 506-513.